

개인의 삶과 사회적 문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김개천 /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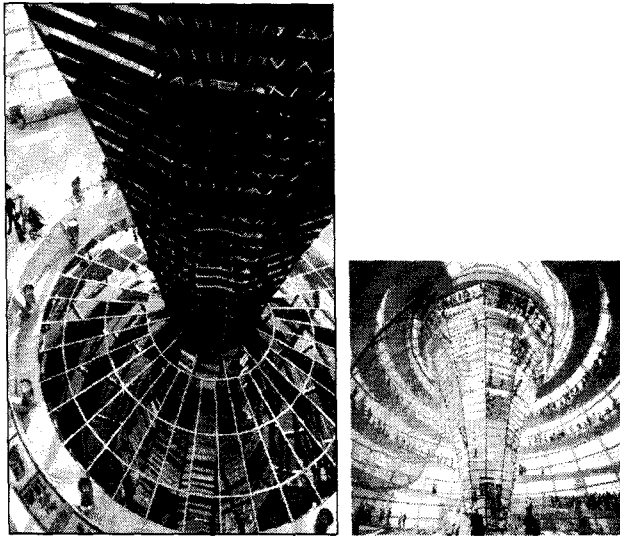
정보의 고도화와 과학적 발전으로 국가와 대중 그리고 개인과의 관계 및 역할이 바뀌고 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다수에서 소수로, 개인의 의견이나 관심이 다양화되면서 민족이나 국가 혹은 대중 중심적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확장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공공디자인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체로서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디자인의 여러 분야 중 공공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개인을 위한 디자인과 공공을 위한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사적인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디자인은 공적 역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상의 수요층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우선되는 고려사항은 공공(公共)이라는 쓰임에 맞게 '모두를 포용'하는 배려와 역할이 요구된다. '모두를 포용'이라고 할 때 '모두'의 대상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가치 지향적이었다고 한다면 현대의 공공디자인은 수용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국가가 추구하는 이상과 개인의 삶을 미(美)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즐겁고 미(美)적인 디자인만으로 혹은 국가와 국민의 이상이 반영된 디자인만으로 좋은 공공 디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1%부족한 점이 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디자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공공디자인은 능동적이고, 다양한 개인의 삶을 수용하며, 사고의 전환까지 이끌어내어 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되면서 동시에 개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인화되고 세분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공디자인은 근무자의 편의, 진보적인 기능의 해석, 시민과의 열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강화 등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넘어 국가 전체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이란 '기준의 제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이 세계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동시에 디자인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개인과 국가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의 제반 노력과 법의 해석까지도 인간의 자유롭고 다양한 삶을 디자인을 통해 향상시키는 노력까지 요구된다. 왜냐하면 디자인한다는 것은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사고의 카타르시스(Catharsis)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보된 가치의 세계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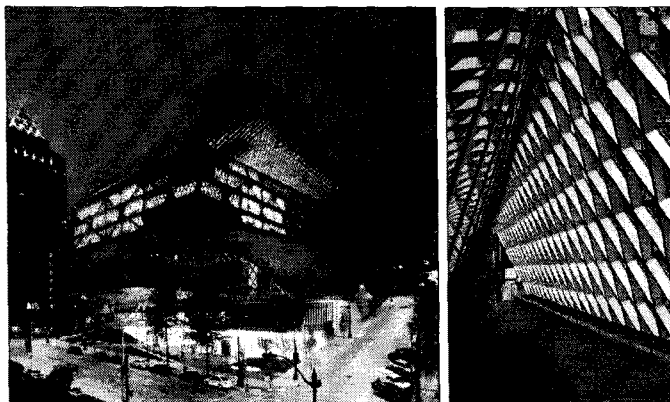
독일 베를린의 국회 의사당 돔은 투명한 물성을 가진 유리를 사용하였다. 시민들이 자



<그림 1> Norman Foster, 독일 국회의사당, 베를린, 1999

했다고 생각된다. 디자인은 공공의 문화와 국가의 발전은 물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면 단순히 책을 보관하며 필요한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는 기능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수용과 정보교류의 장, 지식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장치들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도서관이라는 공공의 공간은 PC의 보급과 정보의 전산화로 인하여 시민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의 도서관보다 가까이 있다.



<그림 2> Remment Koolhaas, Seattle Public Library, Seattle, 2004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인지되어 호기심을 유발하고 친밀감을 생성해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人道)를 도서관의 외형이 감싸는 디자인으로, 우연히 도서관의 내부로 들어온 시민들이 호기심을 느껴 도서관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출입을 적극 유인한다. 내부 디자인도 책을 찾기 위해 힘들게 계단을 이용하는 기존의 도서관과 다르게 서고를 나선형의 층으로 연결함으로써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유롭게 건물 안을 조망하여 투명한 정치를 하도록 디자인이 묵시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맑은 정치를 유도하는 시민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디자인의 형성배경에는 국가와 민족을 중요시 여긴 '나치즘'의 시대를 지나면서 교훈으로 얻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요시하는 미래 독일의 지향점이 담겨 있다. 이런 교훈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의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국회의사당 디자인이 가능

2004년 5월에 렘쿨하스(Rem Koolhaas)가 디자인한 시애틀 도서관을 보면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단순히 미(美)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시민을 도서관으로 유입하고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도서관의 형태와 다르게 보는 각도에

책을 빌릴 때도, 자유롭게 출입하기만하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 일일이 출납신청을 하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서관은 열람자의 편의는 물론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모습의 반영인 동시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를 엿보게 하고 현실화 될 수 있게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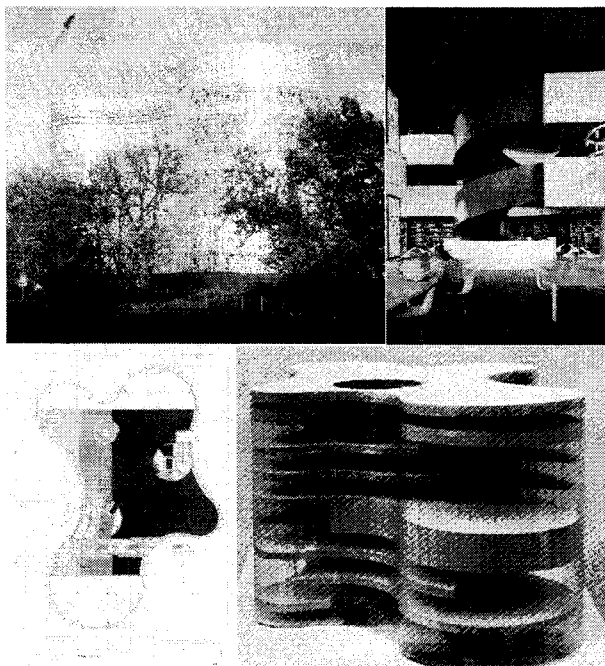


<그림 3> Toyo-Ito, Sendai Mediatheque, Sendai, 2001

토요이토(Toyo-Ito)가 디자인하여 2001년 1월에 문을 연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는 도서관의 개념에 다양한 개인의 삶을 담아내어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투명한 유리를 외관에 적용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도서관의 이미지를 개방적이고 열

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소통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간을 위해 기둥을 튜브형식으로 설치하였다. 도서관 기능에 다양한 인간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시청각 자료실, 미술관, 카페, 영화촬영소까지 갖추고 있으며 각 층은 공간의 용도에 따라 높이가 다르게 디자인했다. 이런 복합적인 공공 디자인은 능동적이며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부분까지 배려한다.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로서 작동할 뿐 아니라 도시 그 자체를 미래적이고 세계적으로 바꾸고 있다.

코트부스 브란덴부르크 공대 도서관(IKMZ BTU Cottbus)은 해르쥔 & 드 뮈론(Herzog



<그림 4> Herzog & de Meuron, IKMZ BTU Cottbu,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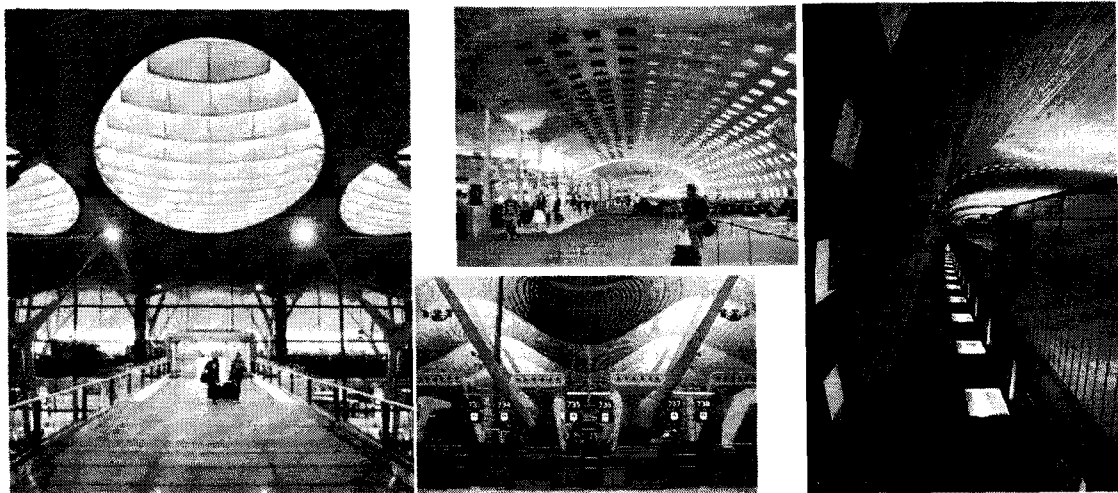
& de Meuron)이 디자인하여 2004년 11월 문을 연 도서관이다. 조용하고 엄숙한 기존의 도서관에서 탈피, 도서관이 학교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아메바(amoeba)’와 같은 외형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크기와 방향의 열람실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금씩 잘려진 평면을 가진 각 층은 수직적 배열로 연속적인 건물의 형태와 균형을 이룬다. 건물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나선형 계단은 모든 층과 이어져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오브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색채 구성 또한 조용한 분위기가 요구되는 열람실은 회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책과 멀티미디어 매

체가 있는 열람실의 내부는 화려한 컬러로 구성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물론 학교의 가치를 건축이 만들어가고 있다.

공항을 예로 들자면, 공항에 우선시 되는 고려사항은 인력소통의 원활성과 다른 교통으로의 접근성 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관문인 샤를드골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은 기능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 문화의 상징이었던 프랑스는 과거의 문화적 우수성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해석하여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접시 모양으로 설계하였다. 400m 길이의 청사 내부는 기둥이 보이지 않으며 금속 파이프와 유리로 지붕을 만들고 천장부터 밑의 도착 대합실까지 시야가 확 트인 공간을 구성하여 프랑스 혁명으로 이룩한 프랑스의 진보와 자유로움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한다.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가 디자인한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Madrid Barajas International Airport, MAD)은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원색적인 기둥과 내부의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정열적인 스페인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으며 천장에는 밝은 조명 시설과 벽 대신 판유리를 사용, 자연광을 유입시켜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한 사회와 국가의 고유한 이미지의 미래를 미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암시한다.



<그림 5> Richard Rogers, Madrid Barajas International Airport, MAD 와 Paul Andreu, Charles de Gaulle Airport, PARIS

미(美)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공 디자인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앞의 사례들로 볼 수 있듯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미(美)적 환경의 형성에서 발전하여 더욱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통해 능동적 삶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삶까지도 배려하여 삶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간의 총체적 삶까지 아우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삶과 비전(Vision)을 실체화하는 도구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때, 총체적 삶의 풍요로움을 실현시키는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

구와 우수한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디자인적 접근을 허용하고 장려하며 활발한 공공 디자인적 인프라 구축과 법체계 등이 이루어 질 때 디자인의 발전과 개인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의 법적 지위 확보, 디자인료의 인정과 기준의 제정들이 요구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디자인이 경쟁 설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고 선도해가는 공공디자인이 드물다는 것은 현재의 경쟁 설계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적 삶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디자인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공통의 분모를 가진 모두가 될 수 있을 때 선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에 더욱 접근하게 될 것이다.